"광주 교육에 변화 필요"…후보 6명 각축

광주시교육감

현 교육감 3선 연임 제한 무주공산
전교조·비전교조·여성후보 등 출마
전교조 출신 후보 단일화 변수로

강동완

김선호

박혜자

이정선

이정재

정성홍

광주 교육감 선거는 6명 후보가 각축하고 있다.

강동완(67), 김선호(74), 박혜자(66), 이정선(63), 이정재(75), 정성홍(59) 등 6명 예비 후보가 표밭을 일구고 있다. 현 장휘국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선거 지형은 전교조, 비전교조 출신, 여성교육감 후보 등으로 갈리고 있다. 최근 전교조 출신 김선호·정성홍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선대 총장을 지낸 강동완 후보는 '광주가 학교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그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위해 6대 디자인 교육 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6대 디자인은 지지털 문해력으로 꿈을 이루는 메타버스 교육 생태계 구축, 공감으로 상생하는 환경 구축,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콘텐츠화할 수 있는 기초학력 문해력 강화, 광주의 역사를 통찰해 혁신 추진, 녹색 공간 확충,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협업과 연대 강화 등이다. 그는 "지역사회가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외국어고 신설을 검토하겠으며, 자사고 설립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9,10대 조선대치과병원장, 10대 치과대학 학장, 16대 조선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봉사단체인 광주비전2030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교조 1세대로 통하는 김선호 후보는 교육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시민사회 활동 노하우를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미래의 광주 교육을 설계하는 데 자신이 적격이라고 한다.

그의 대표공약은 '인성교육 바탕 위에 실력 광주 부활'이다. "실력 없는 훌륭한 인재는 있을 수 없고, 고매한 인성을 바탕으로 한 튼튼한 기초 학력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대안으로 초등학교 기초 학력 담당교사 의무 배치,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립 중·고등학교와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교장·교감을 두루 거쳤으며 광주시의회 교육위원과 동아여중·고 관선 이사장을 역임했다.

첫 여성 교육감에 도전하는 박혜자 후보는 '광주교육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는 '더 힘있게' '더 공정하게' '더 오래가게' 등 광주교육 3대 목표를 제시하고 "바닥에 떨어진 광주교육의 명성을 우뚝 세우고 미래를 살아갈 진짜 힘을 가진 광주 인재를 키워내는 공교육 대전환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실천 공약으로 '실력 광주'를 위해 진로 진학센터를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호남대 교수, 전남도 복지여성국장, 19대 국회의원 당시 교육과학기술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교육대 총장을 지낸 이정선 후보는 감염병·먹거리·폭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학교, 실력이 탄탄한 광주교육, AI 기반 미래교육, 모든 학생의 진로진학 책임제, 5·18교육 세계화를 통한 민주인권평화교육 확산, K-컬쳐를 주도하는 문화예술체육교육 추진, 배움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모두를 위한 교육, 지구를 살리는 기후환경교육 강화, 생활 SOC 학교복합시설 추진 등의 더 좋은 광주교육을 만들기 위한 10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이 전 총장은 교육학 전공(학·석·박사) 출신으로 교육학 교수, 광주교대 제6대 총장, 대통령 교육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장휘국 현 교육감과 경쟁해 2.17% 포인트 차로 낙선했었다.

광주교대 총장을 지낸 이정재 후보는 "국·공·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100% 무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는 생각으로, 홍익인간의 철학으로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국·공·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100% 무상교육으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제 4년 교육감 임기 내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함평 출신으로 광주교대를 나와 초등 교원을 거쳐 광주교대 교수로 총장을 지냈다. 2010년과 2014년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며 국민의 힘 전신인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을 역임했다.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을 지낸 정성홍 후보는 '삶을 위한 교육,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교육감'을 슬로건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그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의 참여와 실천, 지역 사회와의 협치로 학교와 마을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키우기 위해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고 싶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교육, 촘촘한 '학교 안전망 구축', 교육양극화 해소,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공동체 갈등 해소와 통합 등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36년간 중등학교 평교사로 근무한 현장교사 출신이다.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행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교조 출신인 정성홍, 김선호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해 변수로 떠오르고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출신 후보들 외 후보와 2차 단일화 여부가 모색될지도 관심사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미래교육 내가 이끌겠다" 3파전 양상

전남도교육감

김동환, 편향되지 않는 교육 실현
김대중, 디지털교육으로 인재 양성
장석웅, 새로운 미래 공약 발표

김동환

김대중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선거는 3파전 양상이다. 재선을 하려는 현 장석웅 교육감의 아성에 탄탄한 교육경력을 자랑하는 두 후보들의 도전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중도성향의 김동환(52) 예비후보는 '젊고 새롭게 조화로운 전남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김동환 후보는 "지난 12년의 세월은 교육 혁신 실패의 연속이었다"며 "전교조 세력이 아닌 좌우에 편향되지 않은 조화로운 전남교육을 위해 올바른 교육 철학과 선한 의지를 가진 젊고 새로운 인물을 교육감으로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선거를 위해 명예퇴직을 선택한 김동환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교직원 강제 순환 전보 폐지 ▲아침 및 방학 중 급식 실시 ▲지역별 우수고등학교 지원 ▲행정업무 거점학교 운영 ▲교장공모 직선제로 개선 ▲글로벌 유학정보 지원센터 설립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 및 학부모 공개 시스템 도입 ▲돌봄교실 운영 지원단 설립 ▲전남형 교육도시 에듀타운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교직원 강제순환근무제 폐지, 공모교장 투표선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학생 복지를 위해 아침과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고, 복합 교육기능을 갖춘 에듀타운(JNET)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스콘신대학교 오시코시 이학석사(교육적 리더십과 정책)의 학력과 함께 '광주전남미래교육희망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장학사를 역임했다.

김대중(60) 후보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얼굴 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김대중 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손에 미래를 쥐어주겠다. 디지털 2.0사회의 분권화 시대에는 개인이 주인공이 된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디지털 미래교육으로 전남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전남교육 대전환을 약속한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맞서 미래교육으로의 디지털 교육대전환에 전남교육이 앞장서고, 지역의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새로운 지역맞춤형 자치시대에 부응, 더불어 함께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이뤄 내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최근 ▲미래교육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교육력 향상 ▲기본소득 학생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등의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며 표밭을 일구고 있다.

학교 학부모와 맘 카페 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스킨십을 통해 현재 처한 지역 교육계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체육회 등 여러 사회단체들과도 만남을갖고 교육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며, 전남교육자치플랫폼 대표·전남교육대전환실천연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창립위원)을 역임했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수성에 나서는 장석웅(66)현 교육감은 지난 18일 직무정지를 신청한 뒤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장 교육감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년간 오직 아이들의 당당한 미래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결과, 열악한 여건에 처한 전남교육을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으로 우뚝 세웠다"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그동안 함께 일군 소중한 혁신의 씨앗이 아이들의 더 큰 성장으로 단절없이 이어지도록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은 저 장석웅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전남교육을 새로운 미래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5대 핵심공약으로 ▲기초·기본학력 책임교육 확대 및 개별 맞춤교육으로 학생 학습력 신장 ▲미래형 스마트 교실 완성으로 창의융합 인재 양성 ▲학생·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농산어촌유학 확대 등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 ▲도민이 주인되는 교육자치 완성 등을 약속했다.

장 교육감은 "지금 많은 국민들은 정권교체 이후 특권 경쟁과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적 퇴행과 교육자치의 훼손, 교육재정의 축소와 보편적 교육복지 후퇴를 염려하고 있다"며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의 대업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교육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사교육과를 졸업했다. 노무현재단 전남위원회 운영위원, 5·18민족통일학교 이사, 역사정의실천연대 공동대표, 전남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학교급식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김대성 기자 bigkim@